

러시아연방 국방부
군사사(軍事史)연구소(Институт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Минобороны РФ)의 조직과 연구활동¹⁾

니키포로프 N. I.
(러시아 군사사연구소 선임연구원)

1. 조직과 임무
2. 군사사학 연구방법론 모색
3. 외국군사사 연구와 일반화
4. 백과사전 및 안내서 방식 연구
5. 학술연구자 양성과 연구성과
6. 앞으로의 과제

1) 역자 주) 이 논문은 니키포로프(Nikiforov N. I.) 박사가 러시아 군사사연구소의 조직과 연구활동에 관해 쓴 글을 토대로 러시아 군사사연구소로부터 받은 일부 자료를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러시아 군사사연구소의 협조에 감사한다. 참고로 이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자 할 경우 러시아 군사사연구소가 발간한 연구소 소개서(Институт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МО РФ(1966-1996 гг.)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러시아연방 국방부 군사연구소 개설사(1966-1996))를 보기를 권한다.

1. 조직과 임무

러시아에서 군사사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이다. 이 분야의 중핵을 차지하는 연구기관이 러시아 국방부 군사사연구소이다. 러시아 정부는 1966년 8월 군사사 연구(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의 확대, 고급전문가 자질을 갖춘 학술연구자의 양성, 시민들의 애국심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군사사연구소(이하, 연구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연구소는 러시아연방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러시아과학 아카데미로부터 연구소 사업의 학술측면에 대한 지도를 받는다.

연구소는 학술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술연구처(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упр-я), 학술지원처, 도서관, 학술위원회 등으로 편성되었다. 연구소 조직의 근간을 구성하는 곳은 학술연구처이다. 연구처에는 주제별 기본과제를 다루는 제1부 고대에서 1920년대 군사개혁까지의 러시아군사사부, 제2부 1920년대 군사개혁에서 현대까지의 소비에트군사사부, 제3부 외국군사사부, 제4부 군사백과사전출판부 등 4개 부서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3개의 독립된 학술분과, 즉 군사사 문제일반 및 방법론 연구과, 기획조정과, 군사통계과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군사통계과는 ‘대조국전쟁사’(1941-1945년)²⁾ 관련 통계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으며 “제2차세계대전사” 출판을 위한 자료은행 창출 및 조성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소는 공동연구진(коллектив)을 편성해 여러 권의 기본 저작물을 출판하였다. 공동연구진의 활동은 승인받은 학술사업 장기계획과 학술사업 연차계획 혹은 현행 수행임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 장기계획은 중기전망에 대한 연구 임무를 규정하며, 군사사학(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наука)의

2) 역사 주) 러시아에서는 1812년 나폴레옹의 침공에 대항하여 치른 전쟁을 조국전쟁 그리고 1941-1945년간에 독일과 치른 전쟁을 소·독전쟁 내지 대조국전쟁이라 칭한다. 참고로 러시아 역시 1939년에서 1945까지 치러진 세계전쟁을 제2차세계대전이라고 부른다.

전체 기본방향의 범위 내에서 60~70여 개의 새로운 원론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수행을 전망한다. 연차계획은 학술사업 장기계획과 외부로부터 들어온 현안을 토대로 작성된 단기간 수행할 사업 등으로 통상 25개 내지 50개 정도의 주제가 된다.

1993년에서 2005년까지 전체적으로 200개 이상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이 기간에 연구소는 150개 이상의 저작을 출판하였다. 이 중 연구소의 학술연구사업 방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국지전’과 분쟁이 지닌 본질과 동력 그리고 특수성 분석,
- 러시아, 서구 각국 그리고 미국이 군사력을 건설하고 개혁의 경험을 러시아가 군사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도출한 교훈으로서 직업군 건설이란 주요경향을 일반화,
- 국내외 기간장교 양성과 여성의 군복무, 현대 군대에서의 군사교육시스템 경험 일반화,
- 군정치 위기의 발생과 발전 메카니즘 그리고 군위기의 출현과 진행에서의 특성, 세계적, 지역적 국제기구의 활동 성격 그리고 위기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참여한 국가기구 연구,
- 1920-1990년대 소련 군사고문이 외국에 끼친 협조 경험 일반화,
- 국경 형성과정과 현 상태에 대한 러시아의 현 입장 분석,
- 현대적 조건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수행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접근법 연구,
- 러시아연방과 독립국가연합 영토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할 가능성 평가,
- 사회경제적 요소와 역사경험의 맥락에서 방위산업을 추진하는 열감을 고려하여 물자를 생산할 차관 운용 방법과 결과 평가에 대한 접근법 연구,
- 제2차세계대전 기간 소련의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이 외국 전쟁포로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특징적 자료 선별 및 분석,

- 군사 및 민간 교육시스템에 활용할 교과서 및 기타 편집자료 준비,
- 군사개혁을 완수할 법률적 전제조건 연구,
- 학술정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신뢰있는 역사통계은행을 마련,
- 군사사학의 개념적 장치를 승인하고 특성화시키며 그리고 확장.

학술연구자 양성사업도 연구소의 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연구소는 군사학술 최고급기관을 마치고 군사사 연구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 장교들을 받아들여 교육연구반(адьютура)³⁾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연구반에는 3년의 역사학 박사학위 준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연구소에는 군사사 분야의 정박사(독포르, doctor)나 박사(칸디다트, candidate)⁴⁾가 학위논문을 제출할 경우 접수하여 심사할 권한이 부여된 전문 학위논문심사위원회가 있다. 이 심사위원회는 연구소 연구원이자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소의 군사사학자인 뛰어난 정박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1968년부터 군사사학 연구 조정을 위해 군사사학술위원회(Научный совет по координации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области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를 작동시키고 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 소장이 맡으며 학술서기는 학술연구 기획조정과의 장이 맡는다. 학술위원회는 군사사의 기본적인 연구방향을 정해주며 정박사나 박사 학위논문의 주제를 다듬고 러시아내 군사사 관련 저작물을 관리한다. 학술위원회는 연구소내의 군사사 연구 학술조정 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방부 산하 350개 이상의 연구소나 기관 그리고 민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기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역자 주) 일반적으로 육군대학 연구반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러시아 군사사연구소 내에도 설치되어 학위준비과정으로 운용되고 있다.

4) 역자 주) 정박사와 박사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러시아 학사제도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며 러시아는 프랑스어 번역에 따랐다. 러시아에서 실제 의미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에서 정박사란 뛰어난 연구업적을 인정하는 학위다. 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출간된 박사학위를 포함한 2권 이상의 연구 저서나 10편 이상의 연구논문 발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박사(candidate)학위과정은 정박사(doctor)학위를 신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과 같은 것이다.

연구소에는 군사사 도서관(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библиотека)이 있다. 도서관 열람실에는 연구소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군사사분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타기관의 학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연구소에는 출판인쇄과가 있어 학술저작물이나 문서집 그리고 정보지 자료나 학술연구 조직과 지원자료집을 준비한다. 이 분과에는 인쇄기가 있어 소규모 발행부수의 인쇄를 담당한다. 이 분과는 군사사 문헌을 발간하는 다른 출판사와의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백과사전출판부에서는 1) 전쟁과 정치 및 군사지리학과 2) 군사사 및 인물과 3) 군사학 및 군사사상과 4) 군사력 건설 및 군사기술과 5) 군사사지도(地圖) 학술편집진 등이 운용되고 있다.

연구소 연구원들은 모스크바, 스탈린그라드, 꾸르스크 및 기타 방어전 박물관을 조성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으며 '대조국전쟁'(1941-1945년)에서 소비에트국민의 승리를 기리는 빠끄론느이 고르이(Поклонные горы, 추념의 언덕)라는 기념박물관 건립에 군사사적 분야의 조언을 책임지고 있다.

연구소의 대외활동은 우선적인 순위를 갖는 연구소 사업 중의 중요한 일부이다. 대외관계는 국제군사사 조직활동에 참여하거나 외국의 필자들과 공동작업을 수행하며 학술사업의 경험을 교환하고 200여 회 이상의 국제학술 회의, 심포지움 그리고 콜로키움 등에 참석하는 일을 수행해 왔다.

연구소의 대외활동 중에서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세계군사사위원회(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миссия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활동에 참여하는 일인데, 이곳에는 33개국의 군사사위원회가 가입되어 있다. 2003년에는 세계군사사위원회 회의에 러시아 학자들이 참여하면서 (세계 각국의 군사사) 학술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으로 학술정보를 받아보기 어려웠던 사정을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의 군사사 학자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러시아나 외국에서의 학술회의를 가능하게 해 준다. 광범위하게 명망을 얻은 연구소 소속 학자들은 여러 국가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나 심포지움에 초대되고 있다. 양국간

의 군사사학자 교환사업은 국방부의 국가간 관계 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학술연구 사업을 조직하는데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 학자와 타국의 학자들이 상호 방문하는 과정에서 군사사 복무 및 사업 추진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며 상호 관심사를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출판하고 문서 보관소내의 작업을 위한 지원문제 등을 해결하고 있다. 연구소의 공식적인 활동 이 외에도 연구소는 군사사 분야 외국인 전문가를 개별적으로 맞아들이고 있다.

연구소의 대외관계는 유익한 외국 연구자들과의 유용한 공동연구를 축적할 수 있고 외국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이용하며 외국 연구자들의 러시아 군사사 연구결과를 접할 수 있어 역사사 문제를 보다 완전하게 도모하고 학술연구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

2. 군사사학 연구방법론 모색

새로운 단계에서 군사사연구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요 연구방향으로서 군사사학을 이론-방법론적 차원에서 보다 본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실행하는 데 있다.

1994년 연구소에서는 “핵시대에 있어서 전쟁과 평화(Вой на и мир в ядерный век)”를 발간하였는데, 핵시대 군사정치와 사회, 인문 그리고 환경적 실상을 심도 있고 전면적으로 고찰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독자들에게 20세기를 넘어 전쟁과 평화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방법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현대적 관점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 작업은 러시아 군사사학 발전의 현 단계에서 준비된 최초의 거대한 단행본 연구결과 중의 하나였다.

학술서 “러시아 군사사의 경험과 교훈(Опыт и уроки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은 군사사의 미래 발전과 혁신 방법 그리고 군사사의 현대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저작이다. 이 저작은 첫째 부분이 군사사로서 현대 상태와 미래 발전을 위한 문제점으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군사사의 현안과 현재성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군사학(военная наука) 그 자체와 방법론, 전환기 군사사학 학문의 현황 규명, 미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부분은 최신 군사사의 보다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교훈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려 없이는 러시아의 향후 국가와 사회의 성공적인 운동을 기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학술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는 저작이 3권으로 구성된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러시아 군사사(Военная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с древн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이다. 이 저작에서는 러시아의 군 역사를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과거 군사사의 사건과 현상 그리고 그 과정을 역사연구의 객관성 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히 기술 내지 설명하고 있다. 이 저작에는 진실에서 벗어나는 극단적 설명을 배제한 반면, 과거에 대한 이념화나 부당한 비방으로부터 자유로와진 평가를 부각시켰다. 또한 내용을 질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출처나 학술성가를 새롭게 반영하였다. 3권의 저작은 단지 역사적 의미를 갖는 생산물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현저한 성과를 얻고 있는 저작이다. 국민, 군, 정당 그리고 국가의 군사실천 활동은 러시아 군사사상의 발전과 더불어 유기적으로 통합되면서 기술되어질 수 있다. 그러한 작업은 군사이론과 군사실천을 접합시켜 준다. 그러한 작업은 매우 애국주의적이며 내용 속에 포함된 전체 사상과 기본적인 서술 방향은 러시아 사학자 까람진 N. M.(Н. М. Карамзин)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역사는 국민들의 경전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겪어온 사건과 활동의 거울일 수밖에 없고, 고백과 원칙의 전거이자 선조들을 후대로 불러와 현재를 이해시켜주고 보충하며 미래의 사례가 되어준다고 하였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군사사를 담은 3권의 전체 내용은 현재 살고 있는 러시아 시민들이 선조들로부터 받은 유훈을 신성하게 읽어

자신의 역사적 뿌리가 뽐혀서는 안되며 러시아의 영광을 세계문명의 발전과 통합하여 더할 수 있고 기억하도록 해준다. 3권의 저작은 국내외 군사학의 연구성과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 저작에는 조국, 국민, 전쟁 등의 핵심 개념을 담고 있으며 이 개념들이 변증법적이며 유기적으로 통일되도록 제시되었다. 이 개념들은 역사이론적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에 반영된 실질적 측면을 담고 있는 사회철학적 내용까지 채워주고 있다. 저작에 포함된 자료와 기술 형식은 독자들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결정이 러시아 군사력 건설과 러시아 안보의 강화 그리고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저작은 단지 군사아카데미나 군사학교의 강사나 군사전문가 사이에서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독자들의 이해를 불러일으켰다. 저작은 군사교육기관의 새로운 군사사 강좌 프로그램에 맞게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주요 토대가 될 것이다.

연구소 학자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관심을 둔 것은 ‘대조국전쟁사’ 일반과 개별적인 현행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4권의 “대조국전쟁 1941-1945. 군사사 개관”이란 저술이 이루어졌다. 2000년 당시 전쟁 승리 50주년 기념 사업 경쟁부문에서 이 4권의 저작은 모스크바시 일등상을 차지하였다. 이 저작은 지난 15년간의 국내 연구성과 중에서 유일한 전쟁사 분야 학술저작으로서 제2차세계대전과 ‘대조국전쟁사’에 대한 국내외 연구성과의 정수들을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분야 국내 연구성과에서 성취한 업적들을 계승하면서도 필자들은 새로이 밝혀지면서 널리 알려진 1차자료나 고문서 그리고 전시에 나타난 다양한 사건과 현상을 광범위하고도 심도있게 소개하고 있으며 지나간 전쟁의 현안들을 연구하는데 있어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저작에는 여러 입장에 따라 침묵했거나 혹은 표면으로 들춰냈던 사건과 현상들에 매우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쟁초기의 비극과 종료단계의 실패 내지 미완수 작전들, 소비에트 국민이 침략세력을

격퇴하면서 치룬 자유 등의 제가치, 파시스트가 장악한 지역에 포로로 남겨진 동족의 비극적 운명, 소비에트 시민이 적에게 협력한 원인과 규모 그리고 형태, 국민들에게 취해진 억압과 대규모 강제이주 그리고 전쟁이 주는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인본적 그리고 정의적 인과관계 등을 의미한다.

대규모 단위로 실시된 ‘대조국전쟁’에 대한 연구는 공동학술적 성격을 띠으로써 역사문서집을 발간하는 러시아 국내 학계의 거대 학술프로그램을 현실화시켜 주었다.

연구소 학자들은 전시 국가최고 군사정치기관, 즉 국방위원회(ГКО), 최고군사령부(Ставки ВГК), 총사령부(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 등의 문서와 대화전 내지 작전과 관련된 문서들을 밝혀내고 선별하여 출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고군사령부. 문서와 자료(Ставка Верховного Главнокомандования.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4권이 발간되었고, “대조국전쟁기의 총사령부. 문서와 자료(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3권이 나왔으며, 연구소 전 학자들이 참여한 28권의 ‘대조국전쟁사’ 문서집이 전체 약 16,000쪽 분량으로 출판되었다.

‘대조국전쟁’에 관한 공통의 문제점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일차자료 문서집인 “최고군사령부. 문서와 자료”는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이 저작은 4권으로 발행되었다. 제1권(1941년)은 800쪽 분량으로서 559건의 사령부 문서와 66건의 전선에 관련된 문서로 이루어졌다. 이 문서들은 나라와 군에게 매우 고단했던 ‘대조국전쟁기’ 군부대 지도부의 활동을 담고 있다. 문서를 연구해 보면 사령부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들이 독·소전선의 광범위한 주요 방면에서 수행한 10여 곳 이상의 전략적 작전을 어떻게 기획하고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다. 최고군사령부는 풍부한 경험이 부족하며 복잡하고 분명하지 않은 전시 상황에서 자신의 임무를 최고로 완수하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경우 작전은 미리 계획되지 않았으며 상황에 의해서 전선(합대)에서 군대가 수행할 임무나 사령부의 결정이 제약 받았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문제점들이 신속하게 결정은 되었으나 자주 상

충되거나 오류가 뒤따랐다. 이 모든 것이 유생 역량의 참혹한 패배와 장비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제2권(1942년)은 960쪽 분량으로서 702건의 사령부 문서와 67건의 전선에 관한 문서로서 5군데의 전략 작전을 다루고 있다. 제2권은 1942년 적지 않은 고난이 증첩된 전시상황에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과 조치들이 내려졌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모스크바전투 승리에 대한 과대평가, 양측 군사력의 상호관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 그리고 적군의 공격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 등은 최고군사령부의 오판으로 1942년 당시 주요 전략방향에 놓인 대규모의 적진을 붕괴하라는 임무를 내린 결과였다. 그러한 (무모한-역자) 결정은 다시금 참혹한 패배로 돌아왔으며 군과 전선의 상실로 이어졌다.

그와 더불어 최고군사령부가 대규모 전장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경험이 점차 풍부해졌다는 점을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최고군사령부는 스탈린 그라드 전투에서 반격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총사령부를 보다 가치 있게 보기 시작하여 최고군사령부 임원들과 자주 상의하고 전선 지휘에 대한 견해에 귀를 기울였다. 부대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임무를 띤 작전을 수행하는 전선과 최고군사령부의 계획에 근거하여 주어졌다.

제3권(1943년)은 전체 640쪽 분량으로서 415건의 최고군사령부 관련 문서와 51건의 전선 상황에 관한 문서들로 이루어졌다. 이 문서들은 최고군사령부의 활동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정한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최고군사령부는 실수를 덜하게 되었고 무력투쟁에 대해 통찰력 있고 전망있게 지도하였다. 최고군사령부는 작전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전투 활동을 조직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선을 지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제3권의 문서에서는 최고군사령부가 10건의 전략적 공세작전과 2건의 전략적 방어작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수행했는지에 대한 활동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대체로 올바른 정세 평가가 내려져 확신에 찬 활동으로 보다 확

고한 결정을 전선에서 내릴 수 있었다.

제4권(1944-1945)은 약 640쪽 분량으로서 379건의 최고군사령부의 문서와 45건의 전선 사령부의 문서를 포함하면서 (소·일전쟁을 포함하여) 20여 건의 공세작전의 준비와 수행활동을 소화해내고 있다. 문서들을 검토해보면 최고군사령부가 이미 현대전 수행방식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연합국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군사력 지도경험이 풍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최고군사령부가 하나나 두개의 방면이 아니라 전체 전략적 전선에서 대규모 공세작전을 준비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1944년 역사에서 결정적 승리로 평가할 수 있는 11개의 전략적 작전은 동시에 전개되었으나 여러 방면에서 그것도 상호 인과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작전은 적에게 자신들의 전력과 수단들을 운용하거나 견고한 방어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 주지는 않았다.

문서가 보여주듯이 이 시기에는 모든 단계의 명령이 일정한 오산이 뒤따랐으나 전쟁이나 작전의 결말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문서집 발간과 연구는 전쟁사 연구의 학문적 수준을 현저하게 고양시켜 주었다. 전승기술에 대해 사실적 특성을 부여해 주었고 많은 무력투쟁의 문제점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하도록 했으며 기사본말을 심도있고 논쟁적으로 기술하였다.

1996-2001년간 연구소는 “지정학과 러시아의 안보: 역사, 현재, 전망 (Геополитика и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история, современность, перспективы)”이라는 주제를 공동 연구하여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러시아 국가이해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밝혔다. 이 책에는 러시아 국가안보의 수준이 변동하는 조건과 원인, 국내외 위협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해를 실현시킴에 있어서 전쟁과 평화 메커니즘이 발전해 가는 것, 국가안보의 안정유지와 강화 방법 등이 연구되었으며, 국가안보 시스템에서 군사기술구조가 형성되는 특수성이 드러났다.

이 저작에서는 제정러시아, 소련 그리고 러시아연방이 처한 지정학과 국

가이익을 군사사적 관점에서 공동 연구하여 밝혀내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러시아의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이해를 실질적으로 도모하거나 러시아 군사력을 적용하기 위한 전투 규정집을 작성하는 일 그리고 현대적 조건에서 본 러시아 국가안보의 모델을 작성하는 일이 진행되었다.

문서와 자료를 체계적 역사이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러시아 지정학적 이해가 형성된 방법론적, 군사전략적 그리고 군사기술적 특성 그리고 지정학적 구조 속에서 유럽과 세계의 민족과 국가안보 시스템이 어떻게 기능하는지가 연구되었다. 그리고 역사의 다양한 단계에서 러시아 안보를 보장받는 법칙성과 경험을 일반화하였고 제언과 전망이 제시되었다.

연구결과 러시아 지정학적 공간을 조직하는 원칙, 민족국가의 안보체계가 작동하는 법칙성, 군사력 활용의 산술법 등이 규정되었으며 러시아 군사기술구조가 연구되어 결과물이 산출되어 러시아 국가안보를 구성하는 현대 군사력 건설에 조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되었다.

- 국가안보 체계 형성과 군사력 건설의 실제,
- 러시아연방 군사력 규정문서 작성,
- 군사훈련기관과 부대의 교과서나 참고서 작성 활용.

20세기 후반기 지역전과 군사갈등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에 단행본 “군사력 분쟁. 1945-1991년 소련 정치의 예방과 조정(Вооруженные конфликты: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в политике СССР 1945-1991 гг.)”이 현저한 공헌을 하였다. 이 책은 광범위한 원전을 활용하여 현대의 분쟁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조정하는 기본적인 방안과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소련이 냉전기 군사력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했던 역할을 추적했으며 소련군 일원이 한국과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전투지에 참가하여 수행한 역할을 규명해 냈다. 그리고 소련군과 동맹국이 쿠바, 베트남, 이집트, 앙골라,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등 지구의 분쟁지에서 행한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 책에서는 후기 소비에트 공간과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벌어졌

던 군사력 분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역사의 급변속에서 인간의 사상은 자연스럽게 자국의 역사로 눈을 돌려 지난 일의 법칙성과 본질을 인식하게 된다. 미래에 대한 운동은 세대에 대한 계승이 없이 그리고 국민과 국가 그리고 군사력의 시대적 전통을 고려하지 않고 일어날 수는 없다.

군사 분야에서 부대생활이 주는 다양한 측면을 전통적인 관점에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부대 훈련의 모든 과정을 제고하고 ‘조국’ 수호자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전투자질을 양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조건 지워진다. 이러한 관계에서 군사사 연구서 “러시아군 장교의 전통(Традиции офицеров русской армии)”은 매우 훌륭하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그다지 소개되지 않았던 고문서자료와 군사사 관련서적 그리고 회고록 등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러시아 군대의 전통에 대한 국내 군사사 연구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장교들이 군사력의 사회적 일상에서 행한 역할이 현대 군사력 건설의 실제상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가 고려되어 연구되었다. 이 단행본에서는 러시아군 전통이 발전해 온 역사를 규명하면서 러시아 부대가 전통적으로 전투부대나 기간장교를 양성한 과정 등이 밝혀졌다.

러시아 군사독트린의 발전 문제는 “조국 군사독트린(역사적 측면: 위대한 드미트리 돈스키이 공후로부터 러시아 초대 대통령 옐친까지)⁵⁾”이라는 대 연구서가 밝혀내고 있다. 이 연구서는 풍부하고 사실적인 자료를 근거로 군사독트린 형성사를 발생, 탄생 그리고 기본적 발전 단계를 8세기에서 20세기 초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에트국가 군사독트린 형성과 발전(1917-1941), 제2차세계대전 이후(1940년대 중반-60년대 중반)의 군사독트린 시각의 실상, 소비에트국가(1960년대 중반-80년대 말)의 군사독트린 시각이 가져온 기본경향과 위기현상 등을 연구하였다. 개별적인 장

5) Коротков Г. И. и др.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от великого князя Дмитрия Дожского до перв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Бориса Ельцина, Москва, 1996.

들은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 발전의 현단계를 규명하였다.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러시아 군사사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완성되었다. 그 연구에는 군사사에 대한 학문과 인식 그리고 이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역사적, 이론적 그리고 실용적 문제점들이 변증법적인 상호관계와 상호 제약하는 측면이 고찰되었다.

이 작업에서는 러시아 군사학의 발생과 발전에 대한 역사적 전제나 이론 방법론적 기초, 러시아 역사(17세기말-18세기 중반)의 다양한 단계에서 발전하는 군사학, 1812년의 '조국전쟁'과 19세기 중반 위기상황에서의 러시아 군사학, 19-20세기의 전환기 새로운 전쟁의 수행 방식과 형태, 근본적인 군사업무의 전환 속에 놓인 군사학, 소비에트 국가(1917-1945)의 군사학의 형성과 발전, 핵시대의 군사학, 현단계에서 러시아 군사학에 의해 결정되는 현안 등을 연구하였다.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서 "러시아의 군사개혁: 경험과 교훈(Военные реформы России: опыт и уроки)"은 현대 러시아연방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개혁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10월 사회주의혁명 이후 현대까지 추진된 군사력 개혁과 페레스트로이카 경험을 개념적으로 연구해내고 종합하였다.

게다가 특별한 관심을 둔 것은 20세기 전반기 프룬제 M. V.(Фрунзе M. B.)가 주도한 군사개혁의 경험, '대조국전쟁'이 끝난 이후 군사 수요에 대한 비용이 낮게 책정되었을 때의 군사력 재조정과 군축 문제였으며 그리고 군사위협이 감소한 만큼 축소된 국가 방위능력의 수준을 지지하는 데에도 관심을 두었다.

군사력 일반이나 개별적인 부문 그리고 부대와 같은 조직구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가 실현될 때 의심할 여지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동원력: 건설역사와 발전전망"이란 연구서이다. 이 책은 외국 군대에서 신속히 반응을 보인 군사력 발전의 기원과 경험을 밝혀 주었으며 러시아연방에서 동원력이 군사안보를 도모하는 역할과 지위, 군사력 구성요소로서 동원력이 지닌 확실한 전망 그리고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작전능력

등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시각을 규정해 주었다.

전략문제는 “러시아의 군사전략: 역사, 현재, 전망(Военн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 история, современность, перспектива)”⁶⁾이 규명해 주었다. 근본적인 학술작업으로서 풍부한 역사자료에 입각하여 러시아 전략의 근원, 형성과 완성 단계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서는 고대 러시아국가가 형성된 시기로부터 현대까지 러시아 군사사상의 특수성을 풍부한 역사사료를 통하여 규명하였다. 저자는 러시아연방이 현대계에 있어서 방어 건설을 위해 형성해온 군사전략의 정통성과 법칙성을 확립하였다. 이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분야는 군사전략의 최근 이론과 내용, 러시아 군사사상의 현실적 문제점을 단기적이면서도 부문별로 규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과 변화된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소가 추진해온 근본적인 연구가 지니는 중요성을 평가하면서 강조할 사항은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이 중요한 학술적 성과를 가져왔다는 점일 것이다.

- 1) 러시아 군사학 역사에 세계관적, 방법론적 그리고 인식론적 문제점을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군사학의 연구대상과 주제과목, 구조와 발전 법칙성 그리고 임무와 기능이다. 그리고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그리고 본질적이고 실용적인 군사학 수준의 상호관계, 군사학을 군사현장에서 결론을 지워주거나 제안할 수 있는 실현 메커니즘, 군사력을 구성하는 인원의 양성과 훈련 등이 연구되어 왔다.
- 2) 군사안보와 안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현대적 조건 속에서 군사위협 요소를 규정하는 원칙을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세웠으며, 군사위협과 위협에 대처할 역사적 경험을 일반화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얻은 교훈을 정식화하였다. 이로부터 새로운 군사독트린과 군사학

6) 역자 주) 이와 유사한 저작으로 러시아 군사사연구소는 러시아군사전략사(История военной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и)를 2000년에 발간하였다.

그리고 국가와 군사력에 요청되는 내용들을 정식화할 수 있었다.

- 3)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군사력, 군사력 준비, 군사개혁을 평가하고 규정하는 방법론적 문제가 규명되었다. 그리고 군사력 발전사, 그 중에서도 전후시기를 포함한 시기구분에 대한 접근법과 기준, 전투력에 대한 평가 등등이 연구되었다.
- 4) 군사학과 군사사학을 연구하는 분야에 근본적인 범주나 개념으로서 '전쟁의 가치', '승리의 가치', '대조국전쟁기' 근본적 전환의 내용과 기준, 전쟁 종결의 기준, '대조국전쟁기' 결정적 전투(모스크바전투, 스탈린그라드전투, 꾸르스크전투 등)를 평가하는 기준, 전쟁에서의 상실, 양측 적대국의 군사력과 수단의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기준, 전쟁의 성격(미래 전쟁의 성격), 국가안보, 군사안보, 전략적 안정 그리고 '냉전'의 기원 등이 도입되거나 연구의 근거가 되었다.
- 5) 군사사학(러시아 군사사학의 경험이 수세기에 걸쳐 연장됨)의 정통성 계승의 개념과 문제점 등이 연구되었다. 개념적 계획에 러시아 역사의 애국주의 문제가 기술되었다.
- 6) 학술분야에 '대조국전쟁기'에 관한 문서와 자료들이 도입되었다.

3. 외국군사사 연구와 일반화

외국군사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연구소가 운영된 이후 가장 중요한 연구 활동분야 가운데 하나다. 세계전쟁사를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때문에 연구소는 내부에 외국군사사부를 창설하였다.

외국(또는 몇몇 국가)의 군사 분야에서 일어난 사건과 역사 분석사례를 수집하고 반영하며 또 전쟁 사례를 러시아 사례와 연관 관계 속에서 대조해 보고 그런 분석을 통하여 러시아와 러시아 국가안보를 위한 실용성 있

는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바로 외국군사사 연구의 의의가 있다.

러시아연방 국방부와 다른 연관 부처들이 오늘날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을 분명히 하려는 공동연구 작업의 결과 현재와 같은 문제의식이 설정되었다. 공동연구진의 관심 영역에는 군사분쟁사, 현대 분쟁용어, 군사정책사(История военной политики)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정치사 따위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발표된 중요한 연구업적으로는 “외국 직업군인제: 역사, 경험 그리고 창설 조건(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армия за рубежом: история, опыт и условия создания)”을 들 수 있다. 이 곳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서 겪은 군대 건설 경험이 분석되었는데, 이 나라들은 모두 국방력을 보충하고 병력을 충원하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현대 국지전: 전쟁 형태와 수행 방법(“Малье” вой ны современности: Формы и способы ведения).” 이 책은 역사에 대한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기에 구성된 평범한 구조와 병력을 골격으로 한 군사력으로는 외국은 물론 국내 비정규군과 벌여야 하는 전투에서조차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서유럽 국가들의 전쟁 통사: 군대 건설과 개혁 경험(Очерки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западноевропей ских стран: опы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армий).” 이 책에서는 외국 국방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몇몇 중요 이데올로기와 국방개혁 과정 그 자체 그리고 높이 평가할 만한 경험과 바람직하지 못한 경험에서 끌어낼 수 있는 교훈들이 분석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기간에 소련에서 사로잡힌 외국군 포로들: 문헌과 자료(Иностраные военнопленны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 ны в СССР.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편찬자들은 국방부, 내무부, 외무부 그리고 다른 정부기관에서 보낸 훈령이나 보고서를 수집하여 모았다. 제2차세계대전 기간과 전쟁이 끝난 후에 상기한 소련 정부기관들이 소련에 있던 외국군 포로를 부양하고 본국으로 귀환시켰던 문서들을 선별하여 편집 작업하였다.

“베를린 작전: 문헌과 자료(베를린 전투: 항복한 독일에서 본 소련 적군(赤軍) Берлинская операция: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Битва за Берлин: Красная Армия в поверженной Германии).” 저자-편찬자들은 300개 이상의 재미와 의미가 있는 문서를 모으고 체계화시켰다. 이 문서는 제2차세계대전 막바지 몇 개월 동안 일어난 정치, 군사 그리고 외교 사건들을 낱알이 밝혀내고 있다.

“소련과 폴란드. 1941-1945: 양국의 연합군 활동사. 문헌과 자료(СССР и Польша 1941-1945: К истории военного союза.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이 자료집에는 제2차세계대전 동안에 활동하던 소련과 폴란드 빨치산이 서로 협력한 역사와 소련 영토에서 안데르스 장군이 지휘하던 폴란드군의 창설 그리고 바르샤바 해방 역사에 대한 독특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1945년 소련-일본 전쟁: 문헌과 자료(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1945 г.: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이 자료집에는 소련 군사 첩보원(조르게: Зорге)의 활동, 전쟁 준비 그리고 1945년 여름에 전개된 전쟁 과정과 종결 그리고 전후 문제를 비롯하여 1931년에서 1951년까지 전개된 소련과 일본의 정치·군사 관계를 자세히 보여줄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중유럽과 북유럽 그리고 발칸반도에서 전개된 소련군 해방활동사. 1944-1945(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миссия Совет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 Центральной и Северной Европе и на Балканах, 1944-1945 гг.).” 이 자료집에는 유럽 여러 민족들이 반파시스트 해방전쟁을 치른 과정과 종결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주요 외국의 특공대 전력 (구성 경험, 기능, 작전 수행, 지원 법안, 전망)(Силы специальных операций ведущих зарубежных государств(Опыт формирования,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нормативная правовая база, перспективы)).” 이 책에는 특공 작전을 수행할 전력에 관한 외국 사료가 수집되고 분석되었으며 특공대 훈련과 실제 작전 수행에서 나타난 장단점들이 제시되었다.

“러시아와 중국: 군사협력 관계 형성과 발전(Россия и Китай: Стано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в военной области.” 이 책에서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시작된 군사관계에 대한 복잡한 문제점들이 검토되었다. 책 한쪽에는 문서보관소에 보관된 문서와 자료 그리고 옛 정치 및 군사 활동가들이 남긴 회고록이 수록되었다.

“20세기 후반 러시아(소련)의 지역전과 군사 분쟁사”.⁷⁾ 이 책은 1946-2000년 사이에 일어난 소련군과 러시아군이 참전한 국지전과 군사 분쟁을 전략 차원의 군사작전(전술 차원의 군사작전)이라는 경험과 그 군사작전 경험에 대한 일반화를 제시하고 있다.

“정규군과 치안 부대의 반폭동, 반빨치산 투쟁(Армия и внутренние вой ска в противоповстанческой и противопартизанской борьбе).” 러시아와 타국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정규군이 비정규군에 대하여 벌이는 투쟁에서 채택할 수 있는 작전 방향과 방법이 분석되었다. 무장 폭동을 몰래 발전시켜 나아가는 원칙, 발전 단계 그리고 형태들이 제시되었고 빨치산(봉기자들)과 벌이는 투쟁에서 정규군이 취할 수 있는 군사 작전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원인과 요인들이 분석되었다.

“1950-1953년 한국전쟁 : 문헌과 자료(Вий на в Корее 1950-1953 гг.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⁸⁾ 이 사료집에는 한국 전쟁에 참여한 소련군, 무엇보다도, 공군, 고사포 부대 그리고 다른 부대들이 전쟁 전, 전쟁 과정 그리고 전쟁 후에 북한군과 함께 활동했던 기록들을 수록했다.

“주요 국가들의 국가안보 개념의 형성, 내용 그리고 발전과정의 특성(Особенности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держания и развития концепци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едущих государств мира).” 저자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개념이 발전되어 온 주요

7) В. А. Ярменко, А. Н. Почтарев, А. В. Усиков, Россия (СССР) в локальных войнах и вооруженных конфликтах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М., Почково Поле, 2000).

8) 상-페테르부르크에서 2000년에 출간된 “한국전쟁 1950-1953”(Вий на в Корее 1950-1953 гг.)도 참고할 수 있다.

단계와 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정치 그리고 군사-전략에 관한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분쟁에 투입된 군사력: 현대 세계의 경험(Применение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о внутри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нфликтах: Современный мировой опыт).” 이 책에서는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군사력의 운용 형태와 그 효율성이 제시되었으며 국내 분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군사력에 관한 제언이 학술연구 성과에 바탕을 두어 개진되었다.

“이슬람 요소와 지역 군사분쟁(Исламский фактор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вооруженные конфликты).” 이 책에서는 종교 극단주의(이슬람 근본주의)가 과거와 현대 세계의 전쟁과 분쟁에서 보여준 역할을 검토하고 이슬람 근본주의가 근동 여러 나라와 이슬람 세계의 현대 군사-정치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근동: 아랍-이스라엘 전쟁(Ближний Восток: Арабо-израильские войны).” 이 책에서는 풍부한 사실 관계를 보여주는 문헌 사료에 바탕을 두고 아랍-이스라엘 전쟁의 원인, 전쟁 과정, 정치군사 결과 그리고 소련군 참여 수준과 형태들이 분석되었다.

“군사-정치 위기: 유형, 발생 그리고 발전(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кризисы: Типология, возникновение, развитие).” 이 책에서는 많은 사료에 바탕을 두고 군사-정치 위기의 유형 관계와 분류, 위기의 발전 단계와 국면들에 관한 실용성 있는 연구 방법론이 검토되었다.

“군사동맹 의무를 이행하면서 ...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소련의 군사원조, 1920-1990년.) (Выполняя союзнический долг ...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помощь странам и народам мира, 1920-1990гг.))” 이 책에는 전쟁과 분쟁에 참여한 소련군 관련 문헌 자료와 분석 자료가 수록되었다. 또한 소련이 민족 독립과 민족 자결을 위한 민족들의 투쟁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과 맺은 군사-정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측면과 관점을 엿볼 수 있다.

“평화 유지군: 군사 분쟁에서 창설되고 투입된 군대에 대한 경험(Миротво

рческие силы: Опыт создания и применения в вооруженных конфликтах).” 이 책에서는 일정한 규모의 평화 유지군을 투입하여 군사 충돌없이 분쟁을 해결한 세계 경험이 분석되었다. 평화 유지군이 발전하게 된 기본 방향과 옛 소련 영토에 평화 유지군을 배치한 원칙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었다.

“영토 방어: 외국과 러시아 경험(Территориальная оборона: зарубежный и отечественный опыт).” 영토 방어에 필요한 조직과 영토를 방어하는 근본 원칙에 대한 오늘날의 관점이 분석되어 있다. 이 책에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영토 방어에 대한 핵심 개념과 이러한 조직에 다른 나라가 취한 관점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었고 전쟁을 수행하던 군대의 후방을 방어한 러시아 경험도 분석되었다.

4. 백과사전 및 안내서 방식 연구

연구소 조직 안에는 전쟁을 백과사전 방식으로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학술 안내서와 같은 방식으로 편찬하기 위해 군사백과사전편찬부(Военно-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를 설치했다. 여기에서는 학술-연구, 학술-조직 그리고 학술-편집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 부서는 모두 8권에 이르는 학술-안내서의 형태로 러시아 전쟁 백과사전을 편찬하고 발행했다.

이 백과사전에는 11,000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전체 분량은 13,440쪽 정도로서 각 권당 500 내지 700쪽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이 중에서 전쟁사, 군사학 그리고 군사사상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은 양(약 36%)을 차지한다. 러시아 역사에서는 전쟁에 관한 문제들이 전체 자료들 중 74% 이상 차지하고 외국 역사에서는 25% 이상을 차지한다.

전쟁과 정치가 가지고 있는 연관 관계를 오늘날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논문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속에서 전쟁 이론과 실제에 관한 방법론 문제가 뚜렷하게 연구되고 군사-정치학과-군사-경제학 영역도 다루었다.

의심할 것도 없이, 국제안전과 국가안보, 국제법과 전시법을 둘러싼 항목들이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군사와 정치가 하나로 연결된 동맹이나 조직 또는 작은 연맹체(движение)들이 보여준 역사와 활동이 충분히 제시되었다. 러시아 전쟁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제 협약이나 조약 그리고 다른 군사-법령들도 몇몇 논문에서 검토되었다. 병력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서는 지금도 존재하는 문제들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전쟁 백과사전 가운데 가장 복잡한 제2권에는 “전쟁(Вой на),” “군사력(Военная мощь),” “국가의 전쟁 조직(Во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государства),” “국가(Государство),” “내전(Гражданская вой на)”과 같은 핵심 항목들이 수록되었다. 이 항목들은 군사-정치 문제 범위에 관한 나머지 모든 항목들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방법 중에서도 꽤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백과사전에는 전쟁 이론에 관한 주제 의식이 폭넓게 제시되어 있다. 군사 독트린, 군사과학과 기법, 전략, 작전 그리고 전술 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군사 행동의 모습, 형태 그리고 수단에 관한 자료들이 백과사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모든 형태의 작전(군사) 지원, 기술 지원과 후방 지원이 검토되었고 군대(병력)와 군수물품을 통제하는 조직에 관한 문제도 얘기되었다. 군사 작전, 병력 동원, 전투 준비와 특공 작전에 관한 항목에서는 최근의 국지전과 군사 분쟁, 대규모 군사 훈련, 선진 부대의 실전 훈련과 같은 경험이 반영되었다. 백과사전에는 시대 흐름에 발맞춘 새로운 논문들도 실렸다: “첨단 무기 공격에 대항하여 부대(병력)를 방어하는 방법(Защита вой ск (сил) от высокоточного оружия),” “재난예방 의학(Медицина катастроф),” “군대 내의 과학 연구(Научная работа 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ах),” “대공 로켓트 방어전(Противоракетная оборона),” “대우주방어(Противоспутниковая бо

рьба),” “전쟁 통제부(Центр боевого управления)” 등. 이런 주제의식으로 서술된 중요한 항목으로는 “군사사상(Военное искусство),” “군사학” “전투 활동(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대항전(Встречное сражение),” “후방 침투 작전(Глубокая операция)”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군대 구성에서는 병력, 부대(병력)의 종류, 특수 부대와 그 밖의 다른 부대에 대한 구상, 인원 구성, 편성, 발전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을 될 수 있는 대로 완전하게 밝혀두었다. 러시아연방 군사력 구조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 만큼 “육군 항공대(Авиация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해병대(Береговые войска),” “기동 타격대(Мобильные силы)”와 같은 항목과 정규군 구조에 편입되지 않은 치안유지대, 국경 수비대, 철도 경비대 등의 부대들에 대한 항목도 수록되었다.

많은 자료 속에서 군대 지휘기관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 즉 군복무의 특성, 군복무 내용, 군인 계급, 전문성과 보직, 군대 의식(ritual), 군복 형태, 훈장, 상징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군사무기와 군사 기술에 관한 정보는 언론에 공개된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여기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것과 비슷한 형태의 무기와 비교하여 가장 최근에 선보인 러시아 무기를 보여주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이전 소련 군사백과사전에⁹⁾ 소개된 신무기는 대개 외국 무기들이며 그것도 주로 미국 무기였다. 소련은 그렇게 그들 무기를 광고해 주었다. 새 백과사전에 소개된 무기들 중에서는 3/4 이상이 러시아 무기이며 이들 중 85% 이상은 그림과 함께 실려 있다. 게다가 무기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썼고 그 무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전술이나 기술 측면에서 받고 있는 평가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무기와 군사 기술을 개

9) 과거 소비에트 시대에 소련 국방부가 발간한 군사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Минобороны, Военны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М., Воениздат, 1983.

발한 러시아 설계자들을 처음으로 밝혔는데 과거에는 그들 활동에 대한 정보는 금지된 것이었다.

군사사에 관한 주제는 주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전해온 세계전쟁사를 밝혀줄 자료들로 구성되었다. 러시아 군사사, 러시아군의 군사사상 그리고 전쟁을 둘러싼 러시아 외교와 같은 주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근본이 되는 항목들은 2차 세계대전과 내전 그리고 ‘대조국 전쟁’에 관한 것들이다. 이 항목들에서 부족한 점은 개별 전투, 군사 작전, 공방전 그리고 진격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으로 보충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쓴 이 논문들은 최근 10년 사이에 학술 연구에 이용되어 온 문서보관소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평가하였으므로 더 많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기존의 글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소련 대조국전쟁, 1941-1945(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 н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1941-1945),” “제2차 세계대전, 1939-1945(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 на 1939-1945),” “내전과 외국군 간섭, 1917-1922(Гражданская вой на и военная интервенция в России, 1917-1922),” “한국전쟁, 1950-1953(Вой на в Корее, 1950-1953),” “걸프 전쟁, 1991(Вой на в зоне Персидского залива, 1991),” “베트남 인민해방전쟁, 1959-1975(Вой на сопротивления Вьетнамского народа 1959-1975),” “아프가니스탄 위기, 1970-1990년대(Афганский кризис 70-90-х гг. XX в.),” “바르샤바 조약국들의 체코슬로바키아 군사개입 활동, 1968(Акция вой ск стран-участниц Варшавского договора в Чехословакии, 1968),” “아나드이리 (쿠바에 소련군을 창설하려던 작전 1962)(“Анадьрь” (Операция по созданию группировки советских вой ск на Кубе, 1962)),”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군 주둔 병력(Ограниченный контингент советских вой ск в Афганистане)”과 같은 글들이 이런 경향을 잘 보여준다. 내전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한쪽으로만 기울 관점을 수정하기 위해 “백군 운동(Белое движение),” “백군(Белая армия),” “백군 함대(Бельйй флот),” “콜차크 부대(Колчака армия)”¹⁰와 백군 부대들이 치른 전투 하나 하나를

자세히 다룬 항목들이 준비되었다. 소련 백과사전에 이런 항목에 실리지는 않았던 것이다. 내전에 관한 전체 항목들 중에서 백군 관련 항목은 대략 43%에 이른다. 새로운 백과사전에는 “제1차 세계대전. 1914-1918(Перв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1914-1918)”이라는 항목도 실려 있다.

전기(傳記) 성격을 띤 항목들에서는 러시아와 세계전쟁사에서 군사과학, 군사사상 그리고 군대 조직과 같은 영역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기며 큰일을 한 러시아와 외국 전쟁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글들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통솔하던 육·해군 지휘관 및 전쟁 지휘관을 자세히 살펴본 것이다. 이 지휘관들은 전쟁터에서 무력 투쟁을 조직하거나 전쟁기에 육상 전선(해양 전선)과 군대(함대)를 지휘하던 사람들이다. 학자와 전쟁 이론가들에 대한 심도있는 저작은 러시아 제국, 소련 그리고 러시아연방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백과사전에 실린 또 한 그룹은 무기와 전쟁 기술을 발전시킨 뛰어난 엔지니어들이다. 영웅으로 대접받을 만한 뛰어난 공을 세운 ‘조국 수호자’들에 관한 자료들은 백과사전에서 또 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항목들은 소련 영웅 훈장을 두 번씩이나 받은 뛰어난 사람들을 다루었다.

군사-지리라는 주제를 다룬 자료에서는 전쟁 진행에 영향을 준 국가, 대륙, 대양, 바다 그리고 또 다른 전쟁-지리 목표들이 군사-지리 관점에서 자세하게 서술되었다. 새로운 항목으로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백러시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다른 나라들처럼 최근 몇 년 동안에 새로 형성된 국가들에 관한 것이다.

군사백과사전편찬부는 군사백과사전 외에 1998-2001년에 러시아연방 국방부의 학술담당 부서와 함께 러시아-나토 용어사전 편찬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러시아와 나토에 가입한 여러 나라의 군사관계자, 외교관 그리고 학자들이 공동 활동에서 사용하는 군

10) 역자 주) 1920-22년 소비에트 러시아의 내전기 백군을 지휘하던 사령관으로서 주로 우크라이나와 우랄산맥 근처에서 활동하였다.

사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한 권으로 편찬된 이 사전은 현대 군사용어를 통일하고 주요 군사용어에 대해 해설(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군사백과사전편찬부는 러시아 군사백과사전 편찬 작업이란 오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러시아와 외국에서 요즘 발전하고 있는 군사 관련 업무를 백과사전 속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 편찬부는 백과사전을 준비하면서 이론, 연구 방법론 그리고 서술 방법론과 같은 분야에 새로운 연구 업적을 만들어내 반영했다.

5. 학술연구자 양성과 연구성과

군사사 분야에서 추구하는 기초 및 실용연구의 결과는 대개 새로운 연구 방법론과 정보를 찾는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에 따라 결정된다.

연구소 전체의 성공뿐만 아니라 이리저리한 군사사 연구방향의 발전은 전문 연구원들의 자질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다. 물론 새로운 군사사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것은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 박사학위 청구자들, 연구원들 그리고 개별 연구부서들의 이니셔티브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사사 연구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전문 연구원들의 연구 주도 능력이다.

군사사 연구방향을 조정하면서 1년이나 5년 동안 진행될 학술 연구 방향을 계획할 수 있고 박사과정학생들이 선택하는 연구 주제와 학위 논문을 승인할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심사하는 것과 같이 연구 활동을 확인하는 과정은 학술연구자를 육성하는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소에는 정박사(doctor) 학위논문과 박사(candidate)학위 논문이라는 두 단계 학위논문을 심사할 자격을 갖춘 학위논문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1) 07.00.02 - 러시아 역사, 2) 07.00.03 - 일반 역사(현대사), 3) 20.02.22 - 군사사와 같은 세 가지 분야의 전공논문을 심사한다.¹¹⁾ 러시아 역사와 일반역사에 관한 심사위원회는 단지 군사사를 주제로 다룬 학위논문만을 검토한다.

연구소는 거의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60편이 넘는 정박사 학위논문과 200편이 넘는 박사 학위논문을 심사하고 승인해 주었다. 이 중 정박사 학위논문들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941-1945년기 소련이 서부 전략방면에서 벌인 빨치산 투쟁 경험,
- 전쟁, 군사분쟁 그리고 특수한 조건 속에서 벌인 러시아의 특별 프로파간다 경험(1918년에서 1991년까지),
- 20세기 전쟁에서 나타난 심리전 수행에 관한 이론과 사상의 발전,
- 1940년대부터 1980년까지 나타난 군사-전략 균형의 달성과 유지에 관한 러시아 경험,
- 대조국전쟁기 최고군사령부(Ставки ВГК)가 공군 예비전력을 창설하고 실제 전투에 투입한 경험,
-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에서 1990년대까지 국가들 사이에 일어난 군사-정치 위기,
- 전투요원 양성에 관해서 외국과 협력한 러시아 경험(1917년에서 1996년까지),
- 제1차세계대전기 창설되고 투입된 러시아 항공대 전력,
- 1941년에서 1945년까지 독일 파시즘에 대항한 투쟁에서 북오세티아 민족들이 들인 공로,¹²⁾
-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사회생활에서 군사력이 수행한 역할(1949-

11) 역자 주) 여기에 제시된 일련번호는 학술분야에 대한 분류번호이다.

12) 역자 주) 북오세티아 민족이 건설한 북오세티야는 러시아연방의 남부 까프카즈 산맥 북쪽에 위치하여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

1979년),

- 20세기 후반기 지역전, 군사 분쟁에 관여한 미국 특수작전부대의 창설, 발전 그리고 실전 투입 등의 주제들이 그것이다.

박사학위 논문들의 주제는 주로 경험을 일반화하려는 학술과제를 주제로 하였다.

- 대방공(ПВО: Противовоздушная оборона)과 시민들로 구성된 방어시스템의 지휘부 육성(1925-1992)과 그 방어 체계를 개선해온 길,
- 소·독 전선에서 파시스트 독일 보병 사단들의 방어선 구축과 구축 방법,
- 대조국전쟁 제3기에 소련군의 공세작전으로 붕괴된 적군 지휘체계,
- 대조국전쟁 제1기에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소속 군부대가 적군의 후방 첩보부대와 벌인 투쟁,
- 대조국전쟁 제1기에 군관구 지역에서 육성된 예비전력,
- 1941-1945년에 총사령부가 경험한 전쟁을 연구하고 그 경험을 부대들에 적용한 사례 연구,
- 대조국전쟁 이후 육군의 방어작전 중 포격전을 패배의 관점에서 발전,
- 프룬제 군사아카데미(Военная академия им. М. В. Фрунзе)가 양성한 군 지휘관,
- 대조국전쟁 기간에 수행된 방어작전 가운데 부대의 은밀한 이동 기술의 발전,
- 1980-1989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이 수행한 부대 전개, 비행장 그리고 수송 지점들의 경비와 방어,
- 1979-1989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의 제한된 병력이 보여준 전투와 조직,
- 1928-1941년에 지역방어전(ЛВО) 지역에 대한 공병들의 준비: 교훈과 결론,

- 1949-1991년에 나토군이 채택한 개별 부대에 대한 자동화 통제시스템의 발전과 활용,
- 1967-1991년 동안에 근동 지역 국지전에서 채택한 전술 무기,
- 1960-1980년 국지전에서 비정규군에 대하여 정규군이 채택한 전투와 그 준비(남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경험에 비추어).

연구소에서 심사를 받은 정박사와 박사 학위논문들은 이들의 주제가 러시아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전쟁사에 관한 꽤 넓은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학위 논문들은 러시아연방이 국방력을 건설하고 준비하며 실전에 적용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며 군사과학과 군대의 실전 경험을 발전시켜야 하는 문제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 연구 작업들이나 그 외부 요청자들과 함께 연구소 자료를 가지고 수행한 연구 작업들이 잘 보여 준다.

동시에 학위 논문들의 결과는 연구소의 학술 연구 작업, 정기간행물 발행, 학술 컨퍼런스, 심포지움 그리고 작은 토론회와 같은 곳에 잘 반영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연방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는 보고서나 분석 자료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연구성과는 연구원들을 양성하는 제도만이 아니라 전쟁사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을 육성하는 모든 환경에 달려 있다. 첫째로, 연구원을 양성하는 제도의 개선은 군사사학을 연구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연구의 집중도를 높이고 군사-정치, 군사 이론 그리고 실제와 관련된 오늘날의 많은 과제를 군사사학이라는 주제의식 속에서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쟁사 연구에서 넓은 주제를 깊이 연구함으로써 자기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역사학 박사들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학위논문 주제를 조금 넓히면 창의성이 풍부한 새로운 주제를 끌어낼 수 있다. 이 새로운 주제들은 전쟁사 연구의 문제의식(주제의식)을 오늘날 부딪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나이 많은 연구원들을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는 받침돌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박사과정에 있는 젊은 연구원들은 여러 학문이 만나는 곳, 예를 들어, 전쟁사와 첩보전의 조정과 같은 새로운 전쟁사 연구 경향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을 응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지금까지 활동해온 연구원들에 대한 정기 재교육, 더욱이 전자계산(IBM)에 바탕을 둔 새로운 연구 기법을 개발하는 것은 오늘날의 연구조건에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군사연구소는 연구원을 교육시키는 활동에서 현대식 군대 개혁에 필요한 많은 과제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자격을 갖춘 역사가들을 응원하여 여러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6. 앞으로의 과제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문제들을 연구하는 중추기관인 연구소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연구에 달려 있다.

- 국내 발전과 국제 조건에 관한 많은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진 가운데 역사 발전 수준에 맞게 국가의 군사조직을 개편하는 일,
- 군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도 수준 높은 전투 능력을 보존하는 일,
- 군사-정치 위기와 군사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고 조정하는 일,
-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발전시킨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개념,
- 민족과 종교를 둘러싼 긴장의 확대와 그 긴장이 지구 전체의 전쟁 위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러시아의 안전성,

- 러시아 근외 및 원외지역에서 벌어지는 지역전이나 군사분쟁에 파병하는 일,
- 현대 정규군에 대하여 비정규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의 효율성,
- 국내 분쟁에서 군사력,
- 영토방어: 외국 경험과 함께 그 경험 속에서 볼 수 있는 방어 조직과 조직 운영에 대한 오늘날의 관점,
- 지역전 연구에 대한 러시아와 외국 경험.

물론 이런 주제들로 가장 중요한 과제들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얘기된 것처럼, 이 문제들은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 측면에 걸친 문제들이다.

군사사연구소는 연방이 정한 법과 법률 그리고 연방과 국제 수준에서 취해진 전쟁 관련 조치들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또 연구소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국가 프로그램에 관한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1941-1945년에 벌어진 대조국전쟁사를 연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많은 양의 책들을 준비하라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번역: 박명용 역사학박사)

(원고투고일: 2005. 7. 25, 심사완료일: 2005. 8. 9)

주제어: 군사사, 학술연구처의 조직과 연구 성과, 군사사 방법론, 교육연구반,
군사사 학술위원회

<ABSTRACT>

Organiz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of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of the Ministry of Defense, RF

Nikiforov N. I.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organiz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of Military History Institute which the Russian government founded in August 1966 for such diverse research purposes as expanding and completing military history scholarship, fostering researchers, and promoting patriotism.

The Institute belongs under the Ministry of Defense of Russian Federation, but in scholarly aspects receives the guidance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garding academic and methodological matters. It is organized around essential functions of military history research, containing Academic Research Department, Academic Support Department, Library, and Academic Committee. Among these Academic Research Department is a key division which focuses on the institute's specialty of military history, and it is further divided into Russian Military History, Soviet Military History, Foreign Military History, and Military Encyclopedia Publication Departments.

Besides above mention, diverse department activities support the academic research of the institute. First, the Library houses a variety of publications and documents in the area of military history, enabling the focused research activities of scholars domestic and foreign. Publishing and printing department provides speedy printing service for small scale papers, document anthologies and information and resource compilations, and for

large scale academic projects and literature lends its aid in close cooperation with publishing houses.

Military Encyclopedia Publication Department has been formed to provide the basic resources for academic research through independently published encyclopedia and promotional literature. Military Statistics Section, especially, through publishing series of statistical records regarding the major battlefields of World War II, strives to establish and enrich a foundational database for this area of study.

An important function of the institute is to raise and promote academic experts in the military history field. Officers with deep interest in this area may enter an Educational Research Section and receive three years of dissertations training course in history. Doctoral dissertations prepared in this program are presented to the Military History Institute's dissertation evaluation committee, and satisfactory candidates are approved as military history specialists.

The institute also has a Military History Research Coordination Committee whose functions are to decide upon the basic directions for academic projects, guide the topics for doctoral theses, and manage published materials related to military history. For international pursuits the center participates actively in the agendas of International Military History Committee for the exchanging of research results, and also works cooperatively with foreign scholars through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s, symposiums and colloquiums.

For the last decade the cooperative research teams of the institute has produced more than 200 independent publications and joint research findings. As can be known from the many research achievements, the institute's military history project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new Russia have been performed in the pursuit to approach the essence of military history by analyzing from historical perspective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ilitary experiences. Therefore the nucleus of research subjects

is not only in inquisitive academic studies of domestic and foreign warfare and the publication of encyclopedia founded upon solid data; it also bears upon studies into currently applicable issues such as military reform,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ies, professional military system, modern regional warfare and peacekeeping activities.

Key Words : Military history, Academic Research Department's organization and research achievements, Military history methodology, Educational Research Section, Military History Research Coordination Committee

K C I